

회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린도후서5장 14-20절)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17년 1월 18-25일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린도후서 5:14-20 참조)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목차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주제 성구 · 8	
주제 소개 · 9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4	
일치 기도 예식 · 16	
예식 소개 · 16	
예식 순서 · 19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30	
제1일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 30	
제2일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 32	
제3일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34	
제4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 36	
제5일 새것이 되었습니다 · 38	
제6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 40	
제7일 화해의 직분 · 42	
제8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 44	
독일의 교회 일치 운동 상황 · 46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17년) · 53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57	

*3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58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일치 기도 예식서가 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을 위한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 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주제 성구

고린도후서 5장 14~20절 (공동번역)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제 소개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장 14~20절 참조)

독일: 루터의 종교 개혁의 땅

1517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그 시대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과 면벌부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7년은 종교개혁운동에서 이 핵심적 사건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운동은 수 세기에 걸쳐 서양의 교회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독일 교회 간 관계와 관련된 역사에서 지난 몇 년뿐 아니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제이다. 독일개신교연합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는 2008년부터 이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특정 주제 한 가지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예로는 ‘종교개혁과 정치’, ‘종교개혁과 교육’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독일개신교연합회는 다양한 차원의 교회 일치 운동 협력자들을 초대하여 1517년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기념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교회들은, 때로는 논의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폭넓은 논의를 거쳐 이 종교개혁 사건을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스도 축제’(Christusfest)로 지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자 그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마 가톨릭, 정교회, 침례교, 메노나이트 교회 등 독일개신교연합회의 교회 일치 협력자가 이 기념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아픈 분열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놀라운 성

과이다. 루터교-로마가톨릭 일치위원회(The Lutheran-Roman Catholic Commission on Unity)는 이 기념에 대한 공동 이해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기념 보고서 「갈등에서 사귄으로」(From Conflict to Communion)에서는 지난 50년에 걸친 양자 간 대화의 성과와 각자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일치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인식한다. 종교개혁에 담긴 신학적 통찰을 종교개혁의 논쟁점과 구분하게 된 가톨릭은, 이제 루터가 오늘날의 교회에 제기하는 도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그를 “복음에 대한 증인”(「갈등에서 사귄으로」, 29항)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친 상호 비난과 비방을 뒤로 하고, 2017년에 루터교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함께 기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와 폭넓은 교회 일치 차원에서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강력한 주제가 정해지게 되었다.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고후 5:14-20 참조).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와 2017년 종교개혁 기념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 ACK)는 1517년을 기념하고자 여러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보물을 새롭게 발견하기’(Discover Anew the Bible's Treasures)이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모든 회원 교회는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 부여한 의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각자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나중에 이 문서들은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또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시에 있는 여러 회원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순례하였다. 방문을 받은 공동체들은 저마다 성경과 맺은 고유한 관계를 표현하고 기념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된 것인가? 축복이 넘치는 쇄신이 이루어진 것인가? 교회 일치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개혁 500년’(Heillos gespalten? Segensreich erneuert? 500 Jahre Reformation in der Vielfalt ökumenischer Perspektiven)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의 결과물을 책자로 출판하였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권유를 받아들여 5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일치 기도 예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통상적인 목적에 쓰이며, 한편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념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제

독일국가준비위원회(The German National Planning Committee)는 2014년 가을에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자료에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곧바로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오로지 은총만을 통한 인류의 칭의’를 기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들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이 자료는 교회를 괴롭히는, 종교개혁에 따른 깊은 분열의 고통을 인식하며 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화해를 향해 조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본문 9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라는 성경구절이 인용된 것이 올해의 주제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국가준비위원회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5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된 이 성경구절(고후 5:14)을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주제 성구: 고린도후서 5장 14-20절

이 주제 성구는 화해가 피조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고후 5:19). 하나님의 활동 결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룬 이는 말과 행동으로 이 화해를 전파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고후 5: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이 구절은 그러한 화해가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곧 모든 이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화해의 사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살아간다.

8일 간의 기도 예식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5장 14-20절의 내용은 8일 간의 성경 묵상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각 구절의 신학적 통찰을 다음과 같이 전개시킨 것이다.

제1일: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제2일: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제3일: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4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제5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제6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제7일: 화해의 직분

제8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일치 기도 예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해하신 사실을 기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예식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의 깊은 원천에 다가가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고백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화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 증언할 수 있다.

증언을 다그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다그치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다그친다. 공동체와 교회는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화해라는 선물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와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공동 증언을 위하여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이 필요하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한 17:21)

세상은 화해의 사절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 평화를 만들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이끄신다.

2015년 이 문서가 작성되고 있을 무렵 독일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서부 발칸 반도 등의 국가에서 보호와 새 삶을 찾아 온 수많은 난민들을 환대하며 화해를 실천하고 있었다. 외국인 증오에 맞서 독일 국민이 보여 준 실질적인 도움과 행동은 화해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화해의 봉사자인 교회는 난민들이 새 집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또한 그들이 떠나온 나라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려면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구체적인 원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원천이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 넘쳐흘러 많은 이들이 평화를 찾게 되고 화해의 다리를 놓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과 교회를 다그쳐 그들이 화해를 이루고 서로를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기 바란다.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올해의 일치 기도 주간의 기도 자료는 독일의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하였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독일국가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실무단의 단장은 엘리자베트 디크만(Elisabeth Dieckmann) 박사이다.

특히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독일국가준비위원회)의 위원들과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에버하르트 아몬 신부 (Eberhard Amon, 고위성직자, 독일주교회의)
- 베른트 덴스키 목사 (Bernd Densky, 침례교,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자문)
- 엘리자베트 디크만 박사 (Elisabeth Dieckmann,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 가톨릭 신자)
- 레오니 그뤼닝 목사 (Leonie Grüning, 독일개신교연합회)
- 아네테 그루슈비츠 목사 (Anette Gruschwitz, 감리교)
- 콘스탄틴 미론 대사제 (Constantin Miron, 정교회 주교회의)
- 스콧 모리슨 목사 (Scott Morrison, 독립복음주의루터교회)
- 루트 랍-체르거 (Ruth Raab-Zerger, 메노나이트 교회 신자)
- 다그마 슈톨트만-루카스 박사 (Dagmar Stoltmann-Lukas, 주교 총대리 자문)
- 얀-헨리 바닌크 목사 (Jan-Henry Wanink, 독일개혁교회)
- 알리손 베르너-훤넨 목사 (Allison Werner-Hoenen, 독일개신교연합회)
- 마크 비첸바허 (Marc Witzenbacher, 독일개신교연합회 자문)

이 책자에 제시된 자료는 일치 기도 주간을 공동 주관하는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가 임명한 국제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들과 독일국가준비위원회는 2015년 9월 독일 비텐베르크 시의 '루터 호텔'에서 모였다. 그들은 기꺼이 회의를 유치하고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 준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에 감사를 드렸다. 특별히 그들의 작업을 원활

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베른트 덴스키 목사에게 감사드렸다. 실무단은 이 지역의 루터교회 목사이며 작센안할트 주의 교회 일치 업무 책임자인 위르겐 디트리히 (Jürgen Dittrich) 목사의 도움과 안내로 비텐베르크 시와 아이슬레벤 시를 방문하였다. 비텐베르크 시를 먼저 방문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시에 있는 수도원을 떠나고 나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살며 일하였다. 또한 이 실무단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였다. 또한 실무단은 아이슬레벤 시에 있는 마르틴 루터의 생가와 그가 세례받았던 교회도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은 독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린도후서 5:14-20 참조)

증언을 다그치다

독일 교회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리스도 축제(교회 일치적인 그리스도 축제)로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구원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다. 이 예식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따른 분열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 이 예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화해를 위한 활동을 기념할 것이다. 이 활동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화해의 봉사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이 되도록 한다.

기도 예식 내용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결정적인 화해를 기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열을 뛰어넘어 화해의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시편과 성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운 업적을 찬양한다. 우리는 분열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청한다. 하나님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의 화해를 위한 행위, 곧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심”(고후 5:14 참조)을 강조한다. 신자들은 화해의 봉사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이 기쁜 소식에 응답한다.

예식의 상징적 행위

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는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동독 사람들은 창가와 현관에 촛불을 켜놓고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1989년까지 독일민주공화국의 지도층에 속했던 호르스트 신더만(Horst Sinderman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우리는 단지 촛불과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분열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화해가 벽의 건설과 붕괴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는 분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곧 죄를 고백할 때에 상징적인 벽을 쌓아 올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이 벽이 가시적으로 존재하며, 끝으로 이 벽을 허물어 희망의 상징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만든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그러한 끔찍한 분열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극복하는 용기를 준다.

순서와 재료: 벽을 쌓고 허물기

우리의 죄로 발생한 분열. 간단한 설명이 있고 나서 이 예식의 일부 참가자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죄와 분열을 나타내는 분리의 벽을 쌓는다.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이 벽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믿음의 응답-화해의 실천이 시작되면, 벽에서 돌들을 들어내어 십자가의 모양을 만든다.

예식 장소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상징적 행위에 필요한 재료는 돌처럼 보이도록 포장된 동일한 크기의 상자, 예를 들어 신발 상자나 배달 상자 12개이다. 각각의 상자의 앞면에 사랑의 결핍, 증오와 경멸, 그릇된 비난, 차별, 박해, 깨어진 일치, 편협, 종교 전쟁, 분열, 권력 남용, 고립, 자만이라는 핵심 어구를 적는다. 죄를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해당 돌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 벽을 쌓는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다음에 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용서를 청하고 회중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응답한다.

하나님 말씀 선포와 강론이 끝나면 화해를 위한 기도가 이어진다. 벽을 허물어 돌들을 십자가 형태로 만드는 동안 화해의 노래 또는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예식이 소규모로 거행될 경우에는 다른 전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곧 개인의 증

언이 이 예식에 이어지거나 벽을 개인의 증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벽을 쌓는 첫째 부분에서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황들을 증언하고, '신앙으로 응답하기-화해를 실천하기'라는 둘째 부분에서는 교파를 초월하는 화해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촛불

신경을 바치고 나서 네 차례의 청원 기도를 드린다. 각각의 청원 기도가 끝나면 세 명씩 중앙에 밝혀진 초(예를 들어 부활초)에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위임 예식이 시작될 때까지 십자가 주위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위임 예식이 시작되면, 촛불을 들고 있는 12명은 회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이가 각자의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한다. 강복과 파견으로 예식을 마친다.

예식 순서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14-20 참조)

- + 인도자
- ◎ 회중
- 해설자

I.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입당 성가 (지역과 형편에 맞게 선택)

성경이나 미사 전례 성경을 들고 입당합니다.

시작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 아멘.

- +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소 저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고후 5:18 참조).
- ◎ 또한 사제와 함께.

시작 말씀

- +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종교개혁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화해의 봉사자가 되라고 우리를 다그치신다는 것을 바울 성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되게 하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합시다!

시편 98(97) (노래) 또는 찬가

II. 우리의 죄로 분열됨(고백)

고백으로의 초대

- + 지난 역사에 걸쳐 교회에서는 많은 쇄신 운동이 나타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설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하신 것과 모순됩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합시다. 그리고 분열로 인한 상처가 치유 되도록 간구합시다. 이러한 죄들을 지칭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

- +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통하여 쇄신을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저희를 갈라놓는 벽, 공동체와 일치를 방해하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가 쌓아 올린 벽의 돌을 당신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와 치유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 아멘.

(죄들을 하나씩 지칭하면 해당 돌을 가지고 나와 벽을 쌓는다. 잠시 침묵한 다음

에 돌을 가져온 이[해설자]가 용서를 청한다. 이때 회중은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응송을 한다.)

+ 우리의 벽에 놓였던 돌 하나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핵심 어구 ‘사랑의 결핍’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사랑을 하지 못할 때마다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증오와 경멸입니다.
(핵심 어구 ‘증오와 경멸’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2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서로 증오하며 경멸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그릇된 비난입니다.
(핵심 어구 ‘그릇된 비난’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3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서로 고발하고 그릇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차별입니다.
(핵심 어구 ‘차별’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4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모든 선입견과 차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응송: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주소서.”(지역에 맞게 응송을 선택한다.)

-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박해입니다.
(핵심 어구 ‘박해’가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 5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서로를 박해하고 고문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깨어진 일치입니다.
(핵심 어구 ‘깨어진 일치’가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 6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저희 교회들이 일치를 계속 깨트려온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편협입니다.
(핵심 어구 ‘편협’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 7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지난날에 저희의 형제 자매를, 저희 공동의 고향에서 쫓아낸 것과, 오늘날 종교적으로 편협하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종교 전쟁입니다.
(핵심 어구 '종교 전쟁'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8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맞서 벌여왔던, 모든 전쟁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응송: 자비송 (독일 개신교 성가집 178,12)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분열입니다.
(핵심 어구 '분열'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9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라는 공동의 부르심에서 벗어나, 서로 갈라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권력 남용입니다.
(핵심 어구 '권력 남용'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10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권력의 남용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고립입니다.
(핵심 어구 '고립'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11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저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저희 자신을 고립시킨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저희의 벽에 있던 돌 하나는 자만입니다.
(핵심 어구 '자만'이 적혀 있는 돌을 놓는다.)

○12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희에게 저희의 자만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라고 다그치니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응송: 자비송 (독일 개신교 성가집 178,12)

+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저희가 쌓은 이 벽을 굽어보소서. 이 벽은 저희와 당신을 갈라놓고 우리 서로를 갈라놓았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가 분열의 이 모든 벽을 극복하고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성가/노래/묵상 음악

III. 하나님과 화해하기 -하나님 말씀 듣기

제1독서: 겔 36장 25-27절

화답송: 시편 18(17)장 25-32(노래)

응송: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이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가련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시나이다.

응송: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 당신께서는 제 등불에 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시나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는 무리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길은 완벽하고
주님의 약속은 참되며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나이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저의 길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셨나이다.

응송: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제2독서: 고후 5장 14-20절

알렐루야 (노래)

복음: 누가복음 15:11-24

알렐루야 (노래)

강론

IV. 믿음의 응답-화해의 실천

(벽을 허물고, 돌들을 십자가의 형태로 놓는다. 이때에 화해의 노래 또는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가를 부른다.)

+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와 화해하셨다는 당신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돌과 같은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으니, 저희가 화해의 봉사자가 되고, 저희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도록 도와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봉사를 더욱 잘하도록 하여주소서.

◎ 아멘.

평화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가와 노래

(봉헌과 미사 예물)

V. 신앙의 응답-화해의 선포

신조

청원 기도

(청원 기도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세 명씩 중앙에 밝혀진 초-예를 들어 부활초-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위임 예식이 시작될 때까지 십자가 주위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 1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 세상이 당신과 화해하도록 하셨나이다. 저희는 당신께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주신 모든 이에 대하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이 땅의 곳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기도와 노동으로 함께 모이고, 모든 곳에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성령께서 모든 공동체에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송: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나 노래).

(협조자들이 부활초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준다.)

- 2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교회를 모든 진리와 평화로 채워주소서. 타락한 신앙을 정화하여 주시고, 길 잃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며,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들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올바른 것을 증언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며, 갈라진 이들이 다시 하나되게 해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송: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나 노래).

(협조자들이 부활초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준다.)

- 3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시

고,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온 인류 가정을 연민으로 바라보시고, 저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교만과 증오를 없애주소서. 또한 저희를 갈라놓는 벽을 허물어주시고 사랑의 유대로 저희를 일치시켜 주소서. 비록 저희가 나약하지만,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힘쓰시어 모든 인간과 민족이 당신의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 당신께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송: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나 노래).

(협조자들이 부활초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준다.)

- 4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저희는 당신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저희의 형제자매들과 자상에서 이 생명을 나누도록 창조되었나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당신의 연민과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소서. 저희가 저희 이웃 안에서 정의를 위하여 일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아픈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저희가 지닌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송: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나 노래).

(협조자들이 부활초로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준다.)

주님의 기도 (각자의 전통에 따라)

VI.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화해의 봉사자

그리스도의 위임

(촛불을 든 12명은 회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이가 각자의 초에 불을 붙이도록 돕는다.)

- + 불이 붙은 초는 심오한 인간적 상징입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혀주고, 따스함과 안정과 공동체를 이루어 줍니다. 촛불은 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인 우리는 이 빛을 세상으로, 우리의

일치된 증언을 방해하는 싸움과 불화와 분열이 있는 어두운 곳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화해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이 빛을 가지고 갑시다! 화해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이 됩시다!

강복과 파견

+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당신께 외치나이다.

화해를 추구하는 모든 이가 당신의 도움을 체험하여 당신 사랑의 위업을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 아멘.

+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 아멘.

+ 평화로이 가십시오.

◎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노래

(성가 “정의의 태양”-Sonne der Gerechtigkeit, 독일 개신교 성가집 262장, 독일 가톨릭 성가집 481장- 또는 지역의 준비 위원회에서 선택한 다른 노래를 부른다.)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제1일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고후 5:14 참조)

사 53:4-12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
시 118(117):1.14-29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 내버리지는 않으셨네.
요일 2:1-2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요 15:13-17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해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여 근본적인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다. 곧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당신 백성을 위하여, 또는 당신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수세기 동안 복음에 충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았다. 그 한 예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막시밀리안 콜베(Maximilian Kolbe) 성인이 있다. 이 성인은 동료 수감자를 살리기 위하여 1941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기에 그분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후 5:14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낡은 생활 방식은 과거의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게 된다. 바로 풍성한 삶, 오늘날에도 위로와 신뢰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삶,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의미를 지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 교회들은 이와 같은 복음 선포의 사명에 동참한다. 우리는 우리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화해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묵상 질문

-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해 주신 것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형제가 된다. 다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그에게 해 주신 것을 통하여 나에게 형제가 된다”(『공동 생활』[Gemeinsames Leben], 뮌헨, 1980, 16면 이하). 이것이 내가 다른 이를 바라보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이는 교회의 일치와 종교간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시어
모든 이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사셨고, 저희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도록 하셨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저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넘치는 당신의 거룩한 현존 안에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살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제2일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고후 5:15 참조)

미 6:6-8	하나님께서서는 너에게 무엇이 착한 일인지 말씀하셨다.
시 25(24):1-5	제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소서.
요일 4:19-21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 16:24-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해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때에 목숨을 얻는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길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다. 미가 예언자는 이 질문에 매우 분명한 대답을 찾았다. 바로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6:18)이다. 시편 25(24)편의 저자는 우리가 이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르침과 힘을 청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점증하는 고독은 현대의 많은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발전시키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 수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대 간의 도움을 증진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복음의 요청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고립의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다.

묵상 질문

-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요청의 교회 일치적 차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해방시키시어
저희가 자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삶을 지향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사시고 수난하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3일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후 5:16 참조)

삼 16:1.6-7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시 19(18):7-13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행 9:1-19	사울이 바울이 되다.
마 5:1-12	참행복

해설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이를 체험한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을 무시하여야 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관점도 바꾼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에 연연하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행하지만 이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역사를 통하여 독일과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통치자들과 교회들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남용하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모라비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헤른후터)은 1741년 그 누구도 인간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기’로 응답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면, 다른 이들을 불신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부르심을 받게 된다.

묵상 질문

- 나의 삶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는가?
-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이웃 종교의 신자들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변하겠는가?

기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시나이다.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저희 자신의 기준으로 눈이 멀 때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애가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선물인 일치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하여 주소서.

이제와 영원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제4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고후 5:17)

창 19:15-26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되요.
시 77(76):5-15	하나님께서는 늘 충실하시다.
빌 3:7-14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눅 9:57-62	쟁기에 손을 대고 있어라.

해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 회상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종종 기억의 치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가 해방을 가져다 준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고후 5:17)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명심하도록 권유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힘을 끌어내고, 좋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심지어 좋은 것이어도 옛것을 버리라고 요청한다.

올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르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서방의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웅적인 증언을 하였고, 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쇠신되었다.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새로운 미래에 분열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된다.

묵상 질문

- 우리의 분열과 상호 불신의 역사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나의 교회에서 무엇이 변하여야 분열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일치시켜 주는 것

에 힘을 보탬 수 있는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는 어제 그리고 이제와 영원히 한결같으시나이다.
저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날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실 미래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나이다. 아멘.

제5일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5:17)

겔 36:25-27	하나님께서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
시 126(125)	기쁨으로 가득 차다.
골 3:9-1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다.
요 3:1-8	성령으로 태어나다.

해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새 창조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신앙의 실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새 창조의 활동으로 우리는 타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관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말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이 극복된다.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어”(계 5:10 참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새 창조의 약속을 선포한다.

이러한 새로운 삶은 우리가 이를 구체화하고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골 3:12 참조)로 실천할 때에 가시화된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회 일치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많은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러 있을수록 서로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역사가 낳은 업적과 비극을 모두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치와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라고 다그친다.

묵상 질문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
-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주 성부로, 구세주 성자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그러나 또한 여전히 하나이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의 인간적 한계를 타개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일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힘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6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고후 5:18 참조)

창 17: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다.
시 98(97)	온 세상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
롬 5:6-11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눅 2:8-14	기쁜 소식의 선포

해설

화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화해는 매력적인 것이면서도 두려운 것이다. 화해는 우리를 매료시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종교 전통들 사이에서 화해를 바라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깨닫고 두려워한다. 화해는 권력과 인정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롭게 우리와 화해하신다. 하나님의 활동은 심지어 이것을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와 화해하신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셨으며, 이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롬 11:29 참조).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아드님이셨다. 우리 교회는 인간 역사에서 이 사실을 너무 자주 무시하여 왔다. 유대인 학살 이후에 독일의 교회들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특별 과제로 삼았다. 또한 모든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모든 형태의 인간 차별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묵상 질문

-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계약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맞서야 하는가?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나이다.

저희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도록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계약의 선물로 저희를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큰 일치를 이루도록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7일

화해의 직분

(고후 5:18-19 참조)

창 50:15-21	요셉이 그의 형들과 화해하다.
시 72(71)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온다.
요일 3:16L-21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다그친다.
요 17:20-2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해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실이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다그친다고 확신하였다. 오늘날 이는 우리의 분열에 대한 양심 성찰을 이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늘 주신다.

마르틴 루터와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장 칼뱅(Jean Calvin)과 같은 중요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로올라의 이냐시오(Ignacio de Loyola)와 살레시오의 프란치스코(François de Sales)와 가롤로 보로메오(Carlo Borromeo)와 같은 많은 가톨릭 인물들은 서방 교회에 쇠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했지만 인간의 죄로 훼손되었고 일치의 와해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많은 세월이 걸쳐 죄와 싸움으로 상호 적대와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화해의 직무에는 그리스도교의 내적 분열을 극복하는 일도 포함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회들은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일한다. 교회 일치적 화해의 한 가지 긍정적인 예는 루터교세계연맹(the Lutheran World Federation)과 메노나이트교회세계협의회(the Mennonite World Conference)의 대화이다. 이 대화의 결과로 「기억의 치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Healing Memories: Reconciling in Christ)라는 문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0년 이 두 기구는 참회 예식을 공동으로 거행하였고, 이후에 독일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화해 예식이 이어졌다.

묵상 질문

- 우리의 상황에서 화해의 직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 우리는 이러한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기도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와 온 세상과 화해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나이다.
화해의 직무에서 저희 공동체와 교회에 힘을 주소서.
저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평화를 펼치도록 도와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8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고후 5:20 참조)

미 4:1-5	마지막 때에 성령의 힘으로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시 87(86)	하나님의 도성이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계 21:1-5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요 20:11-18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것이 개인적 사명으로 이어진다.

해설

어찌될 것인가? 만약에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찌될 것인가? 만약에 민족들 간의 싸움이 중단되고, 전쟁 무기가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뀐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곧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더 큰 평화가 지배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잔치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더 이상 없다면 어찌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다주신 화해의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시편과 찬가와 성가는 온전하게 된 모든 피조물이 마침내 그 목표에 이르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날을 노래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말해준다. 그 날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다시 한 몸이 되어 자기의 아름다움과 은총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모여 하나님 약속의 완성을 함께 노래하는 모든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노래하는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현존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니 함께 경축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의 그림과 시와 노래를 나누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믿음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묵상 질문

-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그려보고 있는가?
- 여러분 전통의 어떤 노래와 이야기와 시와 그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실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가?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저희는 이 기도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어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찬미하도록 하시어
일치와 화해를 늘 촉진하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성가(나라에 따라 편한 곡을 선택하여 부름)

하나님의 어린양,
하늘은 당신을 찬양하고,
모든 성인과 천사가
수금과 자바라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당신 앞에서 노래하나이다.
빛나는 진주로 장식된 문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는 불멸의 성가대와 함께
당신의 빛나는 어좌로 모이나이다.
그 어떤 눈도 그 광채를 본 적이 없고,
그 어떤 귀도 당신의 영광의 메아리를 들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승리의 기쁨의 외침을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독일의 교회 일치 운동 상황

변화하는 사회에서 함께 일하기

오늘날 8,100만 명의 독일 국민 가운데 약 5,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독일개신교연합회의 회원 교회들에 속해 있다. 또한 비교적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유 교회들과 정교회가 있다. 사실 모든 주요 그리스도교 전통들이 오늘날 독일에 존재한다.

수세기 전에 독일은 많은 왕국들과 공국들로 이루어졌으나 하나의 공통된 교회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마르틴 루터가 이끈 종교개혁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분열을 일으켰으며 결국에는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간의 전쟁을 야기하였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Augsburger Reichs- und Religionsfrieden)에서 왕국이나 공국의 백성들은 자기 통치자의 신앙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이러한 분쟁이 잠시 중단되었다. 자기 통치자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개종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강요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루터교와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되었으나 칼뱅의 추종자들과 재세레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들은 박해를 받았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30년 전쟁(1618-1648년)이 일어나기 전까지 6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으로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 조약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재확인한 것이었으나 칼뱅주의자들에 대한 규정도 추가로 포함했다. 그 결과, 독일 국민들은 지역적으로 교파적 고립의 상태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의 주권 국가 안에서의 종교 다양성은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전쟁의 공포가 몰아치고 교파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이 만연하였다.

19세기 독일에서 다양한 새로운 교회들과 교파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침례교와 감리교뿐만 아니라 구루터교, 구개혁교, 구가톨릭과 같은 옛 형태를 유지한 교회들이 있다. 이러한 교회들의 출현은 흔히 교회 내부적인 저항 운동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이러한 교회들의 신자 수는 비교적 적었으며 대부분은 교회 일치적 관계에 대하여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의 그리스도 교회들의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약 1,200만 명의 독일계 사람들이 동유럽에서 피난하거나 추방되었다. 그들이 독일에 정착하였을 때 어느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는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지역에 가서 살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개신교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서로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독일의 전후 경제와 산업 성장기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독일 정부와 지중해의 많은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터키,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사람들이 독일로 왔으며, 이는 독일의 교파적 종교적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특히 독일의 정교회가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주 노동자라 불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독일에 계속 머무르면서 독일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에는 구소련 연방국들에서 귀국한 독일계 이주민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정교회, 침례교, 유다교에 속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중동,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한 전쟁, 테러, 사회 불안은 대규모의 난민 이동을 초래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인근 지역으로 피난하였지만,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로 피난하는 이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구동독에서 교회, 특히 개신교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공산주의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들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는 구동독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영국의 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은 구동독을 “지상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곳”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하였다. 구동독의 종교성 결여가 공산주의 정부 탓만은 결코 아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신앙은 구동독에서 쇠퇴하고 있었다. 구동독의 무신론은 새로운 무신론자의 무신론과는 다르게 본래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였다. 베를린 사람들에게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질문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독일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신앙을 지닌 이들과 신앙이 없는 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독일 인구의 1/3이 독일개신교연합회의 회원 교회들에 속하며, 1/3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고, 1/3에 조금 못 미치는 이들은 아무런 신앙이 없다. 인구

의 1.7%는 정교회 그리스도인이며 1.8%는 자유 교회들에 속해 있다. 자유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신학적으로 종교개혁과 강한 연관성이 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독일개신교연합회와 같은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독일 국민의 4.9%가 이슬람 신자이며 0.1%가 유대교인이다.

독일의 교회들은 그들의 모든 차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다. 나치 통치 시대에는 정부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저항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나치의 독재 아래 살면서 고통을 겪은 공동된 체험으로, 서로 다른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늘날 독일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협력을 더 잘 하고 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독일개신교연합회는 신자들이 많기에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에서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회 일치 운동의 대부분이 풀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복음주의 연맹 기도 주간’(Evangelical Alliance Week of Prayer)이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과 같은 것이 있다. 이웃하고 있는 본당들과 수도회들은 성경공부, 신학 토론, 축제 거행, 공동 웹사이트 구축,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이들 방문, 지역 기차역에서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정보 소책자 배포와 같은 교회 일치적 활동을 종종 조직한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보통 지역 교회의 신자들인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회와 본당이 지역의 교회 일치를 위한 제휴를 맺어 그들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공식 합의서에 서명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관련 교회들의 지도자들 사이에 체결된 유사한 서면 합의서를 기초로 한다.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은 교회의 지도자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독일개신교연합회의 개신교 주교들은 일 년에 두 차례 만나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과 같은 신학적 주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양자 모임과 더불어, 정교회 주교회의의 대표는 로마 가톨릭 주교와 개신교 주교와 각각 정기 모임을 가지며, 자유교회연합회(Association of Free Churches)와 독일개신교연합회의 정기 모임도 있다.

한 교회의 평신도들이 주최하는 대규모의 교회 대회나 모임은 독일 그리스도교 풍경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여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가톨릭의 날(Katholikentage)과 개신교 신자들의 교회의 날(Kirchentag)이 있다. 이 두 행사는 2년마다 열리며, 각각 ‘독일 가톨릭 중앙 위원회’(Zentralkomitee der deutschen Katholiken, ZdK)와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 위원회’(Deutsche Evangelische Kirchentag, DEKT)가 조직한다. 원칙적으로 이는 한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모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석하거나 초청 연사로도 초대된다.

2003년과 2010년에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ACK)의 모든 회원 교회가 교회 일치 차원에서 함께 모여 기존의 대회와 유사한 교회 일치적 교회의 날(Ökumenischer Kirchentag)을 주관하였다. 여기에서 독일 사회에 중요한 많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인간 생명과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같은 주제들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행사는 성경공부, 신학적 논의, 교회 일치적 기도 예식이 있었다. 이러한 모임, 특히 교회 일치적 교회의 날을 주최하는 것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고 대화로 독일 사회의 다른 이들과 교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 ACK)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설립되기 몇 달 전인 1948년 3월 10일에 설립되었다. 창립 회원은 독일개신교연합회, 메노나이트 교회, 침례교, 감리교, 구가톨릭이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발표 10주년인 1974년에, 독일가톨릭주교회의는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에 가입하였다. 1974년에 정교회도 회원이 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과 구서독에 각각 존재하던 두 개의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 두 협의회의 구조와 회원 교회들이 달랐기에 새 정관을 마련하여 교회 일치 조직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에는 17개의 회원 교회들이 있다. 더불어, 6개의 교회들은 초청 회원으로, 4개의 교회 일치 기구는 참관인의 지위로 이 협의회에 속해있다.

2003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교회 일치적 교회의 날(Ökumenischer Kirchentag)

에,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Deutscher Evangelischer Kirchenbund)의 모든 회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 일치 예식을 거행하고 유럽교회협의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와 유럽 로마가톨릭주교회의협의회(Council of European Episcopal Conference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가 마련한 「교회 일치 헌장」(Charta Oecumenica)에 서명하였다. 또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독일의 상황에서 이 헌장의 의미와 이것이 독일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는 자체적인 문서를 발표하였다.

2010년 뮌헨에서 열린 제2차 교회 일치적 교회의 날에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피조물의 교회 일치의 날’을 제정하여 「교회 일치 헌장」의 권고사항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였다. 피조물의 교회 일치의 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동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공동 과제를 상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날은 해마다 9월 첫째 금요일에 거행된다. 피조물의 교회 일치의 날은 최초로 브뤼(Brühl) 시에 있는 한 정교회 교회에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오늘날 이 피조물의 날은 독일의 모든 도시에서 거행된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날을 거행할 것을 권장하고 9월이 오기 전에 전례예식과 보조자료를 발표하여 사람들이 이를 저마다의 예식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가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한 또 다른 주제는 ‘세례’이다. 2007년 11개의 회원 교회들이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교회와 침례교를 포함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Deutscher Evangelischer Kirchenbund)의 5개 회원 교회들은 여기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후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세례의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2014년 3월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같은 주제로 핀란드교회일치위원회와도 논의하였다.

「교회 일치 헌장」의 10-11항은 유대교 대표들과의 대화의 강화와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신자들과의 만남을 권장한다. 그래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한 유대교 기구와 두 이슬람교 기구들과 함께,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Weißt du, wer ich bin?)라고 불리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서로 다른 세 종교들의 신자들의 모임을 증진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풀뿌리 차원의 공동 활동을 권장하는 데에 조언과 재정 지원을 하였다. 이슬람교의 한 젊은 여성이 이 활동에서 간사 역할을 하도록 고용되었다. 또한 독일과 유럽 국가 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하였다.

또한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증언: 권고 활동」(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이를 주제로 활동을 조직하는 전담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개최된 회의는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회원 교회들과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 EA)의 회원 교회들의 대표들이 증언과 종교간 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복음주의 연맹과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는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복음주의 연맹은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에 참관자의 지위로 가입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교회 일치의 도전들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교회 일치의 주요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소수 교회들과 두 주요 교회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독일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며, 가용 자원도 거의 같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타종교간 결혼에서부터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철저하게 양자간 협력을 기초로 일하기에 다른 교회들, 심지어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도 교회 일치 문제에 관한 의견 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주요 목표에는 독일에는 두 교회들 이외에 다른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어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다른 도전은 특히 풀뿌리 차원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이들이 교회 일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다. 이러한 좌절감은 교파의 경계를 초월하여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깊이 느껴진다. 독일에는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부부들이 많다. 그들은 성체를 함께 받아 모실 수 있기를 열망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교회 일치 운동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고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일치 운동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럽지 않게 여긴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신

앙을 이해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더욱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 28:19 참조)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야 한다. 여러 교회들은 이러한 도전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말고 함께 맞서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여야 한다. 공통된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전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리스도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교회는 이 기념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Christusfest)로 지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 이 문서는 독일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DFEK)의 단독 권한과 책임으로 작성되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17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몬세랫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7~11)

-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무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양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이”(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폴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체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
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 2007년 “귀족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
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줘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테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세계)의 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오로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3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17년 3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3강)
- 장 소: 미정
- 수강비: 10만원 (현장탐방비 별도)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권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신앙직제 02-743-4471

강사

송용민 신부	독일 베텔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수원가톨릭신학대학 하상신학원 교수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철 목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한신대학교 교수
서한석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정훈 신부	독일 뮌헨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의종 신부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 부산성모희보성당 주임사제
이현숙 수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출강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윤종식 신부	로마 성안셀모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운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상준 사관	명지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일 목사	건국대학교,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외

커리큘럼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교회 전통의 흐름 I ① 가톨릭교회의 소개 ② 정교회의 소개
3강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교회 전통의 흐름 II ③ 개신교회의 소개 ④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교회일치운동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어제와 오늘
5강	그룹토의 * 주제: 내가 가톨릭 신자/정교회 신자/개신교 신자로 사는 이유?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6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8강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관에 대한 상호 이해
9강	마리아 공경, 무엇이 문제인가?
10강	그리스도인의 경신례: 예배와 미사는 어떻게 다른가? -가톨릭 미사, 정교회 예배, 개신교 예배와 신심활동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11강	오늘의 경제와 생태계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온 생명의 일치를 위한 경제-생태정의
12강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 이웃 종교인들과의 대화
13강	종강: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출판협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ommissions/faith-and-order/xi-week-of-prayer-for-christian-unity/2017/2017>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weeks-prayer-doc/rc_pc_chrstuni_doc_20160531_week-prayer-2017_en.html